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기 경 희

2022년 8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미


기 경 희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기경희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남 진 열 

위 원 고 관 우 

위 원 김 상 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2년 8월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Aged**

-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Mental Health -

Gi, Kyung-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M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2.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중장년의 개념 및 특징	6
2. 평생교육 참여동기	11
3. 정신건강의 개념과 특징	19
4. 성공적 노화	23
5.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의 관계	34
III. 연구방법	40
1. 연구모형	40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1
3. 측정도구	41
4. 자료분석 방법	44
IV. 연구결과	45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47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48
4. 상관관계 분석	60
5. 매개효과 검증	63

V. 결론 및 제언	68
1. 결론	68
2. 논의	71
3. 제언 및 한계	73
<참고문헌>	76
<Abstract>	92
<부록 설문지>	94

표 목차

〈표 1〉 교육참여 유형	18
〈표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국외 구성요소	29
〈표 3〉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국내 구성요소	32
〈표 4〉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2
〈표 5〉 성공적 노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3
〈표 6〉 정신건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3
〈표 7〉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
〈표 8〉 주요변수 기술통계	47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의 차이	49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기관의 차이	50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활동지향 인식의 차이	52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목적지향 인식의 차이	53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학습지향 인식의 차이	55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	57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	59
〈표 16〉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62
〈표 17〉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65
〈표 18〉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Sobel test	6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40
[그림 2]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검증	66

국문초록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기 경 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 상 미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임의표집 방법으로 표본추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 중이거나 학습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360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으며,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Baron and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학습자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동기(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셋째, 중장년에게 있어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로 나타났으나, 목적지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정신건강에 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중장년,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중장년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장년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그리고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고관우, 2021).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장년은 평생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을 실시하고 자기계발을 강화해야 한다(허명숙, 2017).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중장년의 불안한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한상길, 2013). 한국 정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을 6개 대학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동시에 대학 내 지역사회 환경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정책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학습-삶 간의 연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여 중장년들의 정신건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이다(권준혁, 2019).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평생교육법」 4조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장년들의 평생학습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스텝 포털(step.go.kr)과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또한, 성인 학습자가 본인 스스로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들은 평생교육에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로 인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계발 욕구와 삶의 질 등 노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건강과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학습에 대한 욕구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유혜엽·기영화, 2009).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중장년의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Sabates and Hammond, 2008).

중장년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참여동기가 중요하다(한상길, 2003).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의미하며, 성인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동기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원동력으로써 중장년에게는 개인의 학습 활동과 은퇴 후 노후 생활의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Wlodkowski, 2008). 실제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창업·취업 능력 향상과 사회정책으로서 소득 분배의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관우, 2021).

또한, 중장년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심리·정신적 측면인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lood, 2002). 정신건강은 자신의 삶에 있어 기본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잘 극복하여 정서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정신상태이다(유수현, 2010).

중장년의 정신건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황윤주·이희수, 2015). 성공적 노화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및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중장년을 거쳐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안 성공적 노화를 의미한다(Flood, 2002). 이렇듯 중장년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이 노화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여 성공적인 노화 인식을 갖고 노

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윤희, 2017). 즉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년기의 준비는 노년기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심리적 만족감에 도달했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인식할 수 있어 전 생애 발달관점에서 중년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김보미, 2018). 이와같이 중년기의 평생교육 참여는 정신건강과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전명수, 2013). 이러한 차원에서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정신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관한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질, 교육만족도(김미정, 2020; 유혜정, 2020; 최해영, 2020; 최진근, 2021)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여성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김삼덕, 2013; 전명수, 2013; 윤선숙, 2014; 김남희, 2019; 강옥주, 2020; 양윤희, 2021)였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주재일, 2003; 최만집, 2009; 임은실, 2010). 반면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평생교육을 통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변수로 참여동기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에서 정신건강의 매개 영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약하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 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어떤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중장년의 정신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중장년의 평생교육의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중장년

중장년은 노년기로 진입하기 전 단계로 평균 40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 범위이며 중년과 장년이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20)의 중장년 연령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애주기 중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성공적 노화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전환기에 있는 40세부터 64세를 중장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존중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만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주체자가 되기 위한 동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희·이상희, 2016). 우리나라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구분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편의에 따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1¹⁾).

본 연구에서 참여 동기는 중장년 학습자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의하며 Houle(1961)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의 동기를 의미한다.

3) 정신건강

사전적으로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일상생활을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만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교육학사전, 2011).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 내리고,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변인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시사하는데, 정신건강의 초창기 연구가 ‘질병 혹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라고 정의한 질병 모델에 기반을 두고 우울, 불안, 강박증이나 신경증 등의 질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긍정 심리학적인 관점을 더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총체적으로 유지된 상태’, 즉 질적인 삶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이서정,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우울과 심리적 복지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란 자신에게 주어진 노화라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율적 삶을 통하여 적극적인 직무역량과 자기완성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배, 2008).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며,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심리적 안녕에 이르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자녀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는 삶을 의미한다.

1) 대통령령에 따라 편찬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들이 집필한 민족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개정증보판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중장년의 개념 및 특징

1) 중장년의 개념

인간의 생애에서 중장년은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준비단계의 세대를 말한다(남지은, 2017). 중장년은 생애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의 변화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김정주, 2018). 중장년은 사회적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생활의식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설계하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환원과 봉사를 통하여 은퇴 후의 시기를 부정보다는 긍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며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이다(김진환, 2016; 변정희, 2022).

한국은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영향이며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5명 중 1명은 노인으로 분류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이는 2020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7%가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6천명, 전년 대비 10만 7천명(0.5%) 증가하였고, 총인구 대비 40.1%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50.2%, 여자 49.8%를 차지, 연령별 비중은 50대 초반(21.1%), 40대 후반(20.9%), 50대 후반(20.4%)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장년의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에서 중장년은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준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사전적 의미는 중년과 장년을 지칭하지만,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장년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아 연구자마다 생애주기나 신체적·생리적·정신적 변화 등을 근거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홍금희, 2014).

중장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용어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Jung(1954)은 중년기에 관한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켰으며 중장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심리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약 40세에 시작되는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하였고 이때부터 근본적인 성숙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Havighurst(1972)는 35세부터 60세 사이를 중년기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개인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며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 인간의 생애주기를 발달 과정에 따라 구분하였다.

Erikson(1982)은 심리·사회적 8단계 이론을 발표하면서 7번째 단계가 대체로 중년기에 해당하며 중년기에 해당하는 7단계는 생산성(generativity)과 침체성(stagnation)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여기에서 생산성은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책임을 가지는 부모와 후견인,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봄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침체성은 중년기에 생산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방종이나 신체적·심리적 나약함을 수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중년기를 40세에서 65세 사이로 보았으며 성인기의 마지막 단계로 인생을 정리하고 수용하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Levinson et al.(1978)은 생애주기를 사계절로 비유하며 4단계로 구분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학적 능력이 다소 쇠퇴하지만, 중장년의 시기는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40세부터 45세까지 중년 전환기가 시작되어 60세까지를 중장년으로 정의하였다.

Sadler(2000)은 현대의 21세기 중장년들은 옛것과 새것의 경계 선상에 살고 있으며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아닌 숨은 재능을 도출해 내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시기 즉, 3rd Age라고 정의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중장년에 대한 용어와 연령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중장년을 만 40~6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년과 장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년(middle and senior-aged people)은 흔히 중년과 장년의 의미를 혼용하는 의미로 중년과 장년을 분리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이는 최근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호모 헨드레드 시대(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년을 50+세대(만 50세~64세, 50플러스 세대)라고 정의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최순주, 2017). 국내 연구에서 중년기로 분류한 생활 연령상의 기준으로 30~50세(김태현·김양호, 2003; 이연숙, 2009), 40~60세(김명자, 1989; 김경신·김정란, 2001; 박아침, 2001; 김남순, 2017; 장영은, 2022)로 나타났다.

개인의 발달관점에 따라 중장년기의 특성을 정의하기도 한다. 중장년기는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통 40세부터 최대 64세까지로 정의되었다(최성재, 2009; 최혜련, 2012; 김종혜·강운선, 2013; 이정수·채현길, 2015; 장은주, 2017). 중년기에 대한 연령 구분은 30대부터 60대 중반까지로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전상훈, 2014; 김윤정·한상길, 2018), ‘중년기’를 ‘중장년’이라 칭하고 노년기 전 단계의 인생 주기라고 정의하는 것에는 학자들 간의 큰 이견이 없다(이운해, 2018).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중장년은 노년기로 진입하기 전 단계로 평균 40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 범위로 중년과 장년이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20)의 중장년 연령 범위 기준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활주기, 사회·심리적 관점과 노후 준비 시작 시기부터 법적 은퇴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40~64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중장년의 특징

중장년은 생애 전환기를 경험하면서 현재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현영섭 외, 2011). 그리고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

입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애주기 중 중장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중장년기가 사회적·가정적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시기이며 동시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정미경, 2019).

이와 더불어 중장년은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지영, 2020). 그 이유로는 만혼과 비혼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5년 이상 양육 기간이 길어지고 늦은 나이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중부양 부담으로 중장년이 사회나 가정에서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정홍인, 2017). 이러한 중장년의 특성을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변화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늙어 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반기를 넘기는 시기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중장년기에는 사회의 여러 역할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Cox(1988)는 가족생활과 구조에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상실감, 정서적 갈등과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장년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역할,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 하였다.

Gary(2007)는 중장년을 제2의 사춘기로 두렵고 불안한 시기라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시기이며, 삶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내적으로 자아 정체감, 성숙성과 통제감, 강인함이 가장 높으며, 개인·가족 및 사회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또한, 삶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자신의 능력, 개인 주변의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현세대의 지도 역할과 더불어 다음 세대에 대한 상담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둘째, 중장년의 시기에 대부분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의 신체적 변화를 깨닫는 시기이다. 하지만 건강 수준이 비교적 높고 환경이 풍요롭고 눈부신 발전의 의학으로 급작스럽게 퇴화하지는 않는다(이병석, 2020). 그러나 다양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만성질환을 포함한 성인병이 발병하기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생리적 변화인 갱년기 증세를 경험하며 이 변화로 중장년은 심리적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경제적 변화로 중장년은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수입이 높아지게 되지만 이중부양 부담으로 오히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에 자산을 일부 소진하거나, 퇴직 후 창업하기 위해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년기 빈곤층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병석, 2020). 이로 인해 중장년은 은퇴 이후의 수입감소, 지출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생활의 빈곤을 대비하는 경제적 대책이 중요한 시기이다.

3) 중장년의 평생교육 요구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자기역량 강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의 학력 수준과 평생교육에 대한 양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장은주, 2017). 특히 중장년들은 본인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로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중장년들의 노후 준비와 노화 태도(Aging Attitude)에 부정적인 영향과 노후불안으로 이어져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인, 2016).

또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중 건강 및 경제에 대한 준비 부족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대변되는 현 사회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들은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위기는 단순히 중장년들의 내면적 불안만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과 태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들의 노화 태도와 불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초고령 사회는 저성장과 더불어 인구 절벽과 재정절벽의 요인으로 다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정책이나 행정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제 구축도 요구된다(이창익, 2018). 따라서 중장년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참여등기

1) 평생교육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 1조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문자해독,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의 기본목표는 급변하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사회, 학교, 가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인데, 그동안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전체를 지칭하는 ‘평생교육’이란 말을 새로 사용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평생교육 기본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회교육법」(1982)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개념이 본격화되었다(평생교육법령, 2000).

법적 개념의 평생교육은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로 구분된다. 광의적인 개념의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 전체에서 행해지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 그 외의 여러 교육을 합친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반면 학교 정규교육과 반대되는 학교 밖의 교육개념으로서 협의적인 의미의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의 개념

과 그 내용이 동일하며, 이는 현재 「평생교육법」상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국내 학자들이 정의한 평생교육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면, 최운실(2006)은 평생교육을 교육 형태상으로 형식, 비형식 교육 그리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방법과 교육 선택의 자유를 통해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상의 전체성과 평등성, 교육의 통합성과 광역성, 시기의 향상성과 계속성, 접근 방식의 상대성과 다양성 그리고 교육체계의 탈 정형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교육이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은 교육 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그는 평생교육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형식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 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즉,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고, 학습자는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교육, 즉 형식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모든 구조화된 학습 활동을 말한다. 이는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교육과 달리 공식적으로 학력·학위 등의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이다. 공식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은 현재 직업이나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지식습득, 새로운 기술 학습, 소득 증가, 승진 기회를 높이기 위한 학습참여 등 개인의 직업적 의도를 내포한 교육(훈련)·학습 활동을 말한다.

넷째, 무형식 학습은 학위 취득 또는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과도 다르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교육 훈련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과도 다르다. 무형식 학습은 학습자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친구·직장동료 및 상사의 조언·조력을 통한 학습, 언론매체, 대중매체, 인쇄매체 등을 활용한 일방적 학습, 컴퓨터나 인터

넷을 활용한 쌍방향 학습 등을 의미한다.

한준상(2002)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중장년 학습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개인의 경험에서 교육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성인 학습자는 자신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련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따라서 성인학습의 ‘의미 찾기’ 과정과 ‘의미 만들어 내기’ 과정은 핵심 학습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 교육기관은 성인 학습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갑부(1997)는 평생교육은 사적 개인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모든 교육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 재편하려는 교육 체제 개혁의 지도 이념”이라고 제시하면서, 평생교육은 생활의 질 향상의 가치추구와 자아실현, 세계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에 수반하는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의 뇌 용량은 컴퓨터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의 교육환경은 과거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던 시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한층 발전시켜야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이한주, 2021).

이로 인하여 신체 변화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행복의 만족과 삶의 질, 심리적 복지를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의 노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Sabates & Hammond, 200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혼란을 겪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으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육의 수준이나 행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심리적 구조를 말한다(한상훈, 2007).

Bandura(1999)는 평생교육에서의 동기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며, 끝까지 노력을 다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였다. 이석진(2015)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했으며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 참여동기는 개인이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요구,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참여의 시작과 지속에 작용하는 기제로 정의했다. 즉,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삶의 주체자가 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다(안은미, 2015).

평생교육은 개인의 참여동기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느끼는 만족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대명, 2015). 즉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은 생애 발달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참여하게 되는 참여동기는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된 특징과 사회 변화에 경험하는 환경과 배경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찾아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지이며 복합적인 내면 작용이라 할 수 있다(홍미경, 2018). 학습에 대한 참여동기는 평생교육을 선택한 이유와 일정한 방향이나 목적 그리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참여하면 성공적 노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한승진, 2005).

인간은 목적을 지향하는 편이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며, 어떤 과업이나 업무를 맡닥뜨렸을 때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동기화된다. 그 어떤 것이 성인들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하는지 학습 참여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은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연구이다(정현진·이희수, 2009).

평생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정의하는 개념은 조

금씩 차이가 있지만, 참여동기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목적의식이며, 교육에 참여를 발생,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학습목적 및 학습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참여동기를 교육 학습 참여 활동의 원동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송영선, 2018).

Knowles(1980)는 교육참여의 주요한 요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할 때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 운영방법 등의 요소와 관련이 높으며 노년에도 평생교육에 참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전순득, 202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생애 전환기에서 학습 참여동기가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을 정의하고자 한다.

3) 참여동기 유형

성인 학습자는 그들의 바탕에 대한 특성과 경험, 처해 있는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학습 참여동기나 학습 욕구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참여동기는 학습자의 배경 및 특성의 차이 혹은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 개인의 참여동기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동기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최운실, 1986).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중장년의 학습자는 환경이나 배경이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록 동기는 복잡하지만, 학습 참여 대상자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목표로 어떤 형태의 교육적 요구를 원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권영선, 2019).

Houle(1961)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교육에 참여하는 나이가 많은 적든 학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기여하는 참여동기 유형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전제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운실, 1986).

첫째, 활동지향((activity-oriented) 동기이다, 이는 특정 목표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사회활동 참여, 대인관계 증진, 소속감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학습보다는 참여한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대인관계를 중시하며, 참여 행위나 활동 자체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만족을 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유형이다(박창동·이희수, 2011).

둘째, 목적지향(goal-oriented) 동기이다. 이는 가장 뚜렷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동기유형으로 개인이 설정한 직업상의 직무향상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을 목표로 학습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자격증, 학위 취득, 직무 관련 연수, 승진,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목표 및 성취달성에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실용주의, 기능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일단 달성하면 학습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인다(한상훈, 2007; 김미란·한정란, 2014).

셋째, 학습지향(learning-oriented) 동기는 사람들이 습득하는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학습한다. 즉, 학습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해당 학습을 통하여 익히고 성장하려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조광미, 2017). 이들의 학습 참여는 목적지향이거나 활동지향적인 유형과 달리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또는 확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학습 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가 내재된 참여동기를 형성하며, 확실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신은정, 2012).

Houle(1961)이 제시한 위의 3가지 동기유형을 기본으로 후속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학습자들 역시 평생학습 참여동기 유형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Houle(1961)의 동기유형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활용하고 있다(이기환, 2003; 장미옥, 2007; 한상훈, 2007; 조금순, 2014).

국내 여러 연구 중에서 최운실(1986)은 Houle(1961)의 연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즉, 그는 목표지향형에는 직업적 성취와 직업 전문성 함양, 활동지향형에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 사회로부터의 인정 및 참여, 외적 기대에 대한 충족, 현상으로부터의 도피와 변화, 학습지향형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총 6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김나영·강정은, 2011). Houle(1961)의 연구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

어진 참여동기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Sheffield의 성인교육 참여동기유형

Sheffield(1985)는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지향형, 개인적 목표지향형, 사회적 목표지향형, 대외 활동 지향형, 대외욕구 충족 활동지향형 등 총 다섯 가지의 참여동기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를 Houle의 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학습지향형은 Houle의 학습지향형과 그 성격이 동일하며, Houle의 목표지향형은 Sheffield의 분류에서 세분화하여 개인적 목표지향형과 사회적 목표지향형으로 나뉜다. Sheffield의 동기 유형론은 Houle의 유형론의 범주 안에서 의미가 있다.

(2) Burgess의 성인교육 참여동기유형

Burgess(1971)는 교육참여 요인 척도(REP: Reasons for Education Participation)를 개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요인을 분석한 그 결과 일곱 가지 동기유형을 추출하였다. 그것은 지적 성취동기, 개인적 목표 성취동기, 종교적 목표성취 동기, 현상 도피의 동기, 활동에 참여동기, 공식적 자격 획득동기, 사회적 목표 성취동기이다. Burgess가 추출한 일곱 가지 유형의 동기유형 또한 전반적인 구조가 Houle의 유형론으로 대별 가능하다.

(3) Morstain과 Smart의 성인교육 참여동기유형

Morstain과 Smart(1974)도 Houle의 유형을 같은 방식으로 요인 분석하였다. 즉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표시하는 사회관계 변인, 직장 상사의 기대에 따른 복종 정도를 알아보는 외부 기대 충족 변인, 사회봉사 참여 정도를 알아보는 사회복지 참여변인, 승진 혹은 직업적 상승 이동을 확인하는 전문성 향상 변인, 한가함·무료함·욕구 좌절을 극복하는 정도를 점검하는 자극 도피 변인, 배우는 즐거움 자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 관심 변인 등 6가지 교육참여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Morstain & Smart, 1974). 연구결과 그들은 Houle이 제시한 학습동기 중 목표지향형 학습동기는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활동 지향형 학습동기의 경우도 현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자극하기 위한 활동 지향성,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

거나 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 지향형으로 구분됨을 발견하였다.

(4) Boshier의 성인교육 참여동기유형

Boshier(1985)는 참여동기 유형을 사회 복지, 사회적 접촉, 외부·내부 지향적 전문성 함양, 지적 유희와 흥미, 교육적 준비와 교육적 보상, 그리고 사회적 적응, 사회적 참여, 현상으로부터의 도피, 사회적 향상과 도피, 인간관계 증진, 교육적 보충 등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Houle의 유형론이 성인학습의 복합적 동기 요인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적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분석 도구로 48개 항목의 교육참여 측정 척도(EPS)를 개발하였다. 교육참여 측정도구를 통해 추출된 영역은 각각 지역사회 봉사, 전문성 함양, 외적 기대, 사회적 자극, 사회적 접촉, 그리고 지적 흥미 등 총 여섯 갈래이다.

다음은 Sheffield(1983)의 다섯 가지 동기 유형론, Burgess(1971)의 일곱 가지 교육참여 요인척도, Morstain과 Smart(1976)의 여섯 가지 교육참여 척도, Boshier(1985)의 여섯 가지 유형의 교육참여 측정 척도(EPS)를 유형별로 요약한 것이다. 이는 대체로 Houle(1961)은 성인학습자의 복합적인 학습동기 요인을 유형화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 교육참여 유형

Houle (1961)	Burgess (1971)	Morstain & Smart (1974)	Sheffield (1985)	Boshier (1985)
활동 지향형	개인적 목표성취동기	사회복지참여변인	사회적 목표지향형	외적기대
목표 지향형	종교적 목표성취동기	외부대개충족변인	개인적 목표지향형	지역사회봉사
학습 지향형	지적성취 동기	사회관계변인	학습지향형	전문성 함양
-	현상 도피동기	전문성 향상변인	대외활동 지향형	사회적 접촉
-	활동에의 참여동기	자극도피 변인	대외욕구 충족활동	사회적 자극
-	공식적 자격 획득동기	지적관심변인	-	지적흥미
-	사회적 목표성취동기	-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연구자들의 참여동기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연구에서 Houle(1961)의 3가지 유형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Houle(1961)이 구분한 영역을 바탕으로 활동지향형,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3. 정신건강의 개념과 특징

McCarthy(2009)는 우울의 발병원인이 사회적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사회 원인론은 중장년기에 사회경제적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울 증상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중장년기의 우울은 사회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연령, 건강,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정도,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허준수, 2004). 그리고 우울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 날 수 있으나 중장년 이후 노화에 따른 절망감, 경제적 어려움, 고독감 등 심리·사회적 요소들로 인한 발병 비율이 높은 편이며, 우울 및 무력감 등의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조해경, 2002).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으며 국민의 절반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 문제가 근래에 들어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이은환, 2020). 또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변화되었다(성혜연·이성규,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정신건강 개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는 정신건강을 정의하는 데 있어 정신장애의 부재,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 자율성 일상의 요구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의

실현 등을 이야기한다. APA의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정신장애 유무로 지칭하기 위해 병리학적 개념에서 시작하였고 다소 이상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최고의 행복감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된 의미와 사회적 행동으로 활발하고 유쾌한 기질로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적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lasser, 2003).

이후 정신건강은 ‘사회적·정신적·신체적 측면과 아울러 윤리적·가치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주변 환경과 잘 적응시키며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광의적 개념까지 등장하였다(장다현, 2018).

정신건강에 대한 해석은 질환 중심의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질, 생활 만족도 등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인 심리적 복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본인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주위 환경의 통제력이 있고, 삶에 목적이 있으며,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유성경 외, 2014).

Hackney and Sanders(2003)의 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복지감 등의 긍정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정신건강은 현대사회의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홍성희·송정선, 2015).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유전적, 신체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변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였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우울증을 주목하는 것은 우울증이 갖고 있는 많은 우울증상들이 중장년의 삶과 관련한 일상적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울증이 자살의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입증하고 있다(조석주, 2000; 이인정, 2011; 황소연, 2014).

윤지은과 전해정(2009)은 중고령자의 취업 및 은퇴와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주장이 혼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취업 및 은퇴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은퇴상태가 지속될 때 정신건강이 저하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밝힘에 따라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중장년을 창·취업으로 연결시킨다면 자발적 비자발적 은퇴 또는 실업으로 인한 자아개념의 손상 자존감의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중장년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고령자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이 기본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나 긴장을 잘 견뎌내 정서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황으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긍정적 정신상태를 의미한다(윤영채, 2017).

정신건강은 인간의 정서 상태와 타인 간의 관계,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의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한 개인의 정신상태를 의미한다(유영란·이지연, 2006). 또한, 신체적 건강의 개념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최적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병적 증세 및 정신병리가 없으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상태를 말한다(유수현 외, 2010). 더 나아가 정신건강 개념은 주관적인 안녕감, 자기효능감,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인 잠재능력에 대한 자기실현 등을 포함한다(신학진·전상남, 2009).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로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되며, 고령 인구가 안고 있는 고령자 문제는 중장년부터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장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고용정책, 즉 평생교육을 통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중장년의 정신건강을 부정적 의미에서 우울과 불안 긍정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복지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2) 정신건강 구성요소

Carroll(1969)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개인적 혹은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에의 태도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과 타인에 있어 자아실현의 동기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였다(정은주, 2000).

Wolman(1985)은 정신건강의 기준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이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공상과 상상을 자주 하는 것이다. 즉 고난을 극복하고 목표 과제를 성취하려는 욕구의 강도이다.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갈등과 긴장이 없는 개인 작업에서만 성취행위를 할 수 있고 갈등상황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즉, 성취동기는 개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게 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도록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균형(emotional balance)이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건강한 사람의 정신적 정서는 외부의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불균형한 정서를 가진 개인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에도 과격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이는 자기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인지적 기능(cognitive function)이다. 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나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외부의 위험함을 과대평가하거나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다고 느낀다. 즉,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시력이나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외부세계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넷째,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이다. 이는 타인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때때로 자기방어적이기도 하며, 또한 상호적 관계 및 박애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은주(2000)는 사회적으로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네 가지 내부반응을 상호적 우호감, 박애적 우호감, 적대감과 도구적 우호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상호적 우호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며 진실한 이성 간의 관계가 된다. 두 번째 박

애적 우호감은 박애 정신의 신념에 의한 개인의 희생된 행동이다. 세 번째로 적대감은 자기방어나 이성적인 행위일 때는 정상적이지만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우호감은 자신에게 수혜적인 태도로서 양육기 부모와 유아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응된 개인은 이 중 세 가지의 우호감이 비중에 따라 조화된 형태로 행동한다.

다섯째,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신건강을 정의해 보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중도적 입장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을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저항력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정경표, 2017). 즉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잘 견디어 개인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4. 성공적 노화

1) 성공적 노화 개념

21세기 국제사회는 성공적 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추세로 가시화되었다. 웰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항노화(anti-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긍정적 노화(positive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디지털에이징(digital aging) 등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중년부터 노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 개념들이다(송영순, 2019).

현대의 의학기술과 경제성장으로 우리 사회도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가

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에서 7.2%를 이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1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1).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러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9.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21). 성공적 노화는 이렇게 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대한 이슈로 생물학, 사회 및 행동 과학, 의학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수적이다(지민경, 2016).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개인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담론 또한 충분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노인 인구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긍정적 삶과 잠재력 능력 강화,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년기의 노후준비 행동을 통한 노년기의 성공적 삶의 성취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고령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노화,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Ryff(1989)는 노화는 하나의 발달 과정이며 노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87년에 Rowe와 Kahn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이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Rowe and Kahn(1997)은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보통의 노화는 질환이나 기능장애는 보이지 않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로 인해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진, 또는 사회 세계의 축소로 인해 고독하고 활기차지 않은 나날을 보내는 노년의 모습인 반면, 성공적 노화는 우리가 노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오던 이러한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 및 환경의 적절한 통제로 극복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념화한 것이다(정경희 외, 2010).

성공적 노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 및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중장년을 거쳐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 삶의 의미와 만족한 노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말한다(Flood, 2002).

나라의 문화 차이와 개인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심리적, 생물학적, 삶의 긍정적인 측면이 다 영역의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의견이다(최인영, 2007; 안정신, 2009).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주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 것 또한 급격히 고령화되어가는 인구학적 변화 때문이다. 노년에도 중장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노화에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의 단순하고 행복한 삶인 외적인 것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인간의 생애 중 중장년기 때의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김미혜, 2005). 즉 질병과 장애가 없고 신체적 인지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인생에 참여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성공적 노화로 정의한다(김동배, 2008).

초기 성공적 노화 개념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이후에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Cosco, 2014).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것은 긍정적 자기 변화와 더불어 생산적인 기능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Bowling, 199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후 생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Rowe and Kahn, 1997; Crosnoe and Elder, 2002). 따라서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맞는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한정란, 2010; 강성옥·하규수, 2013; 최은영·최혜경,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척도를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에 의 지향, 적극적인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감, 자기수용, 타인수용 등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는 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이며,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Rowe and Kahn, 1997; 박경란·이영숙, 2002;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의 기능적 측면, 심리적 복지감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관점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지속성까지 다양한 측면을 측정지표로 다루고 있다(송영순, 2019).

신체적 측면을 살펴보면 건강한 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다. Schultz and Heckhausen(1996)은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 노화의 지표를 신체적 건강이라고 보았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모델을 제시한 Rowe and Kahn(1997) 또한, 질병 없는 건강함 삶을 중요한 성공적 노화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Ryff(1989)는 개인이 인식하는 신체 건강 수준이 삶의 만족도와 연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신체기능의 약화는 기억력 및 인지능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신체적 기능은 물론 인지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 부문이 가장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외, 2014).

심리적 측면에서는 삶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자원, 사회자원을 통해 수용성, 적극성, 개방성 등이 발달하고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eldman, 1995). 개인자원의 자기 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안범희·엄운재, 2015). 자기수용은 중장년 이후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경험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정신건강으로 연결되며(기채영, 2008) 자신의 생각, 신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원만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는 중요 심리요인이다(허성호 외, 2012).

사회적 측면에서는 삶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일생동안 지속해야 할 과업(Fisher, 1992)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지원을 받는다(이창수 외, 2013).

성공적 노화는 2000년 이후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건강상태가 아닌 노화를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했다(Colings, 2001).

국내외 연구들에서 논의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해외 연구와 국내 연구의 공통점은 정서적·심리적 안정, 신체적 건강,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 생산적 활동, 경제적 안정 등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보았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해외 연구들은 개인의 목표, 성취, 자율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지만, 국내 연구들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상호작용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는 것이다(김미란, 2017).

Ryff(1989)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임상, 발달, 정신건강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신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 적응, 개인 성장, 인생 목표 등 6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즉 삶의 과정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통합모형은 심리적 차원의 강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홍현방, 2001) 삶의 만족과 긍정적 기능성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기초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김동배, 2008).

Baltes and Baltes(1990)는 노화로 인한 손상에도 자신이 소유한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참여하여 그 기술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중요한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최대한 성취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Fisher(1992)는 긍정적인 삶을 통해 중장년 이후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노년기에 자신을 비롯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으며 더불어 오래 살아가는 장수와 건강한 신체, 삶의 만족에 대한 복합체가 성공적 노화라고 설명하였다. 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는 원기 왕성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owe and Kahn(1998)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생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사회참여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참여모형에서 제안하는 성공적 노화에는 세 가지 주요한 행동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이 적고,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활동적인 노년을 강조하면서 노화를 발달과 성장을 포함한 긍정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는 위계적인 순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신체의 건강은 질병, 장애가 없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 유지가 가능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은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도모하는데 수월하며, 남은 삶을 더욱 잘 적응하고 안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Vaillant and Mukamal(2001)은 노화를 변화, 감퇴, 발달로 설명하면서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숙과 발달을 의미하는 노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Chou and Chi(2002)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을 생산적 참여 상태, 기능적 상태, 인지적 상태,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는 4차원으로 구분하면서, 연령, 성, 교육 정도, 친척 수, 친구와의 접촉 빈도, 재정적 긴장, 만성적 질병 수, 주관적 건강, 청력 손실, 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설명하였다.

Crosnoe and Elder(2002)는 가족 참여, 직업 성공, 시민 역할 참여, 생활 만족도, 활력 등 심리적 안녕 상태를 성공적 노화로 보고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였다. Glass(2003)는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과 질병이 없는 상태로, Elizabeth 등(2004)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건강을 압축하는 다차원적인 결합체를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Kalish(1975)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년기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자신의 현재 지위 및 활동에 대한 만족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 등 네 가지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였다.

Browne(1979)은 노년기에 이르러 지위나 역할의 상실에서 적응 또는 이에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정병은·이기홍, 2009).

Deep and Jests(2006)는 기능적인 면을 추가하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금연, 장애가 없고, 관절염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없으며, 활동적인 생활과 신체활동, 인지장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외에서 성공적 노화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국외)

연구자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Ryff (1989)	자기수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율성, 환경조성, 목표의식, 개인 성장
Baltes and Baltes (1990)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능력, 수명, 생활 만족도
Fisher (1995)	목표의식, 성장배경, 자율성 자기수용, 환경통제
Frend and Kahn (1998)	긍정적 태도, 외로움 부재, 주관적 안녕감
Rowe and Kahn (1998)	적극적인 인생 참여, 질병 피하기, 높은 수준인지, 신체기능
Guse and Mascasar (1999)	건강, 상호작용, 목표의식, 개인의 성장, 자기수용, 자율성
Fisher and Specht (1999)	개인의 성장, 상호작용, 건강, 목표의식, 자기수용, 자율성
Collings (2001)	태도의 측면: 정신건강, 지역사회로부터 존경, 지혜 전수 가정적 측면: 가족관계 자연적 측면: 독립적인 삶 건강, 신체활동 경제적 측면: 경제적 지지
Crosnone and Elder (2002)	시민 역할 참여, 생활 만족도의 활력, 가족 참여 및 직업 성공
Chou (2002)	기능적, 인지적, 정서적, 생산적인 상태
Friedrich (2002)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
Chou and Chi (2002)	정서적, 인지적, 기능적, 생산적 참여, 시민 역할 참여, 생활 만족도
Crowther and Parker and Achenbaum (2003)	긍정적인 영성,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적인 삶의 참여, 질병과 장애 위험의 부재, 신체적 기능
Knight and Ricciardeli (2003)	융통성, 자기수용, 노화에 대한 태도와 적응력
Hanson (2004)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활동성
Phelan, Anderson, Lacroix and Larson (2004)	사회적 건강, 기능, 신체, 심리, 새로운 학습

출처 : 윤형준, 2010, p.51-52; 백지은·최혜경, 2007. p.6-7; 이호선, 2010. p.168-170, 조은혜, 2017.를 토대로 수정 보완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노화를 포함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이 포함된 구성요인 등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홍현방, 2001).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여러 분야의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토하여 한국의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대부분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신학진, 2009; 서명환, 2011; 김보미, 2018; 염미숙, 2021). 성혜영과 유정현(2002)는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 구성요소를 사회적 관계유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만족하는 삶, 복지, 편안함, 질병 예방, 가족관계, 경제적 준비를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안은미(2021)은 행복하고, 대접받고, 독립적인 삶, 경제적인 자립, 의지하는 마음, 평안한 삶, 봉사하는 삶, 가문, 행복함을 성공적 노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지모(2016)는 중고령 노인의 노후 준비도 향상에 따른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중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연구에서 노후 준비도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중고령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후 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년퇴직과 은퇴를 맞이할 대상으로 노후 생활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노후 준비 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 연령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오병철·한정란·김은영, 2016).

황승희(2012)는 노후 준비도는 결혼상태, 종교, 월평균 소득, 주거형태, 노후준비의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결혼하였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를 가졌으며,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40세~49세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노후 준비도는 높게 나타났다.

안정신(2009)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노년기의 연장과 함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중장년의 과업이라고 확인했고 중장년에 이어 노년기의 연장과 함께 성공적 노화

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중장년의 과업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년기의 성공적 노화 인식 수준에 따라 건강, 생활 만족도 등 노후준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과거의 노화는 노인에게만 해당한다는 인식을 했다면, 현재는 노화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중장년층이라 보고 있다(박순조,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에 비해 중장년층에 대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도 자기통제력 및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등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및 구성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김미혜·신경림, 2005; 박진성, 2010; 장은주, 2017; 정홍인, 2017). 그리고 일부 연구 중에서는 중장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연구도 있다(최인영, 2007; 조진희, 2013; 이근영, 2020).

중장년 학습자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아탐구, 자기개발, 성찰적인 교육 목적을 중시한 중장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살펴보는 것이니만큼 김동배(2008)가 한국적 개념 틀과 척도를 연구하여 개발한 성공적 노화 변인을 사용하여 자기완성 지향, 자율적인 삶, 자녀에 대한 만족, 적극적 인생 참여, 자기수용, 타인수용 등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표 3 >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국내학자)

연구자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주요내용
홍현방, 최혜경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유무, 자아 및 지혜, 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심리적발달과정 ·정신 및 신체 기능유지 ·과거와 현재수용/죽음에 대한 긍정자세 	심리적, 신체,사회적측면
성혜영, 유정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심리, 사회, 문화, 환경의 다차원개념 ·긍정적인 적응과정 중심 	
김미혜, 신경림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와 정신건강 ·자기통제와 심리적 적응 ·사회적 관계와 생산적 활동 	
남기민, 이정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통합,역량 강화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심리적 복지상태로 도달하는 것 	
박경란, 이영숙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교류, 봉사, 자율성, 개인적인 성장 ·안락한 삶, 역할수행 자아수용 	삶의 유형
김은숙, 김귀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하고, 대접받고, 독립적인 삶, ·자기관리와 안정된 일상생활 ·봉사하는 삶, 자기수용 및 자율적인 삶 	
김동배, 송혜자 (2008),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 자녀만족, 자기와 타인수용 	
이도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의미의 삶, 목적이 있는 삶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는 삶 	
성혜영, 조희선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와 생산적 활동, 다양한 사회관계망과 지지기반 	
안정신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기 고령화로 인한 성공적 노화에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중년기의 과업확인 	노후준비도
이선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 준비도는 다르게 확인되었음 	
지민경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의 비관적 성찰은 노년기를 생애 단계로 구체화 시키는 데 기여함 	
박순조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어 노화 과정에 적응해가면서 사회문화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자율적인 삶을 향유하며 나아가는 상태 	
이상주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예정자가 퇴직후의 삶의 성공적 노화 수행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정서·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통하여 성공적 노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조기 은퇴가 갑자기 증가하여 중장년 또는 노년층의 빈곤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차윤지, 2011).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는 전 생애 발달 측면에서 중장년 시기의 발달 과정 중 자연스러운 한 과정인 성찰과 관련된 중장년층 성공적 노화 연구와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들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떤 노후준비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적 노화로 연결되는가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는 편안한 삶,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가족과의 관계가 평온한 삶 등이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은 중장년에게 경제적인 노후 준비도 중요하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이 성공적 노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홍현방, 2002; 정순돌, 2004)와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곽만석, 2005; 김경호·김지훈, 2009)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남녀의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가 성공적 노화와 정신건강의 관계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5.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의 관계

1) 중장년의 평생교육과 참여동기 간의 선행연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활동이 저하되고 의존적으로 변하는 노인층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의 습득과 활용,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생애주기의 확장적 관점에서 생애전환을 맞이하는 중장년까지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전명수, 2013). 이는 성인 여성 학습자 특성 유형과 학습 참여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학습자의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습 참여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고 참여동기유형 중에 목표지향 동기가 삶의 질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개인의 정서와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동기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참여했는지, 다른 외적 동기에 의해 참여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일상 환경, 배경적 특성, 경험, 처해 있는 상황 등이 모두 달라 학습 참여동기나 학습에 대한 욕구가 다른 유형으로 표출되기에 학습 참여동기는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조금순, 2013).

최진근(2021)도 평생학습의 참여동기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특히 미래 노인층인 중장년은 노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노후 생활의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후 준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김대명·안은미·허정무, 2015; 장다현·홍미경, 2018; 공경자·주동범, 2021).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대두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동기를 파악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두영·김호연·윤지현, 2018). 그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온라인 학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정현아, 2020). 또한, 김한별(2007)은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파악하여 동기를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참여로 유도되며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안은미와 허정무(2018)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에 따라 중장년 시기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참여동기유형에 따른 적절한 학습이 학습자의 정서적 불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참여동기와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

Freedman(1976)은 정신건강은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태도, 자아 성장과 자아실현, 심리적인 일치감, 사회적 영향력, 환경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미래학자들은 2050년에 들어서면 평균수명이 15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했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120세까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보이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김보미, 2018).

중장년에 이어 노년기에 접어들면 정신기능 및 신체의 약화로 인한 노동능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생산기술과 생산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지위하락, 역할상실 등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겪는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장년에 이어 노인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지게 된다(남효선, 2018).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우울 등을 경험하면 더욱 심각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은퇴 시기 이전부터 중장년에 이어 노인의 재무설계에 관한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재무설계를 통해 길어진 은퇴 후의 노

년기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최소한 노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은퇴 이후의 노인들은 종교에 의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 함께 노인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유의미하며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희선, 2020).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정신건강 간의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히 생활체육, 무용, 헬스클럽, 골프프로그램, 스킨스쿠버 등 스포츠에서 참여동기에 따른 정신건강(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재일, 2003; 임은실, 2010; 남효선, 2018).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동기 프로그램 중 취미, 스포츠 참여동기는 정신건강에서 공포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취미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정신건강에서 정신증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관계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임은실, 2010).

따라서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정신건강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성공적 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3)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 간의 선행연구

노후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중요하다(임용숙, 2015).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평생교육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정영·한상훈, 2013; 전명수, 2013; 윤선숙, 2014).

이창일(2015)은 노인은 사회적 지위 역할이나 활동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년과 은퇴 등으로 부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완성을 지향할 수 있는 평생교육 참여 활동은 성공적인 노화와 연결된다고 하였고, 실제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석일, 2012).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쳤고, 이는 곧 노인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김삼덕, 2013; 이정복, 2016).

신의현(2019)은 내재적 학습 참여동기와 외재적 학습 참여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가정과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완성지향, 자기 및 타인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삶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재학습을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라경과 김사라(2016)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생활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에서 학습능력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학습의 주체로써, 학습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창출한다. 따라서 노인학습은 사회복지의 지향적인 보호와 치료에 치우친 노인교육만이 아닌 중장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적극적 학습 주체로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명환(2011)은 노년기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여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2009)은 중장년의 노후 준비도를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활동 준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중·장년층의 성별과 소득 그리고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 4가지 영역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학습자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윤영채, 2017).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으며(김동배, 2008) 건강은 중장년, 노인 등 모든 대상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

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구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여가 경험과 건강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어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부적응개선, 내재적·외재적으로 경험하는 역할상실에서 오는 소외감과 고독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임민주, 2016).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의 진입을 과거에 노인이라는 생애주기의 범위가 중장년까지 확장됨에 따라, 생애 전환기를 앞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의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4) 정신건강과 성공적 노화 간의 선행연구

정신건강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질병의 피해를 확산시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은 실제 건강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수준을 판단함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수현, 2010).

우울은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이며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장년에는 갱년기라는 신체 증상에 가려져 우울증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스스로 우울한 정서를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울감은 중장년 개인의 역량과 공식 비공식 지지체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박찬욱, 2011; 이윤지, 2013).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우울과 같은 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성공적 노화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김지훈, 2008). 이 같은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실감에 따른 정신적 건강의 저하가 삶의 만족 저하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배, 2012).

김해경(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심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약화와 기능 저하는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현상이나 그들이 인지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로 조사되었다(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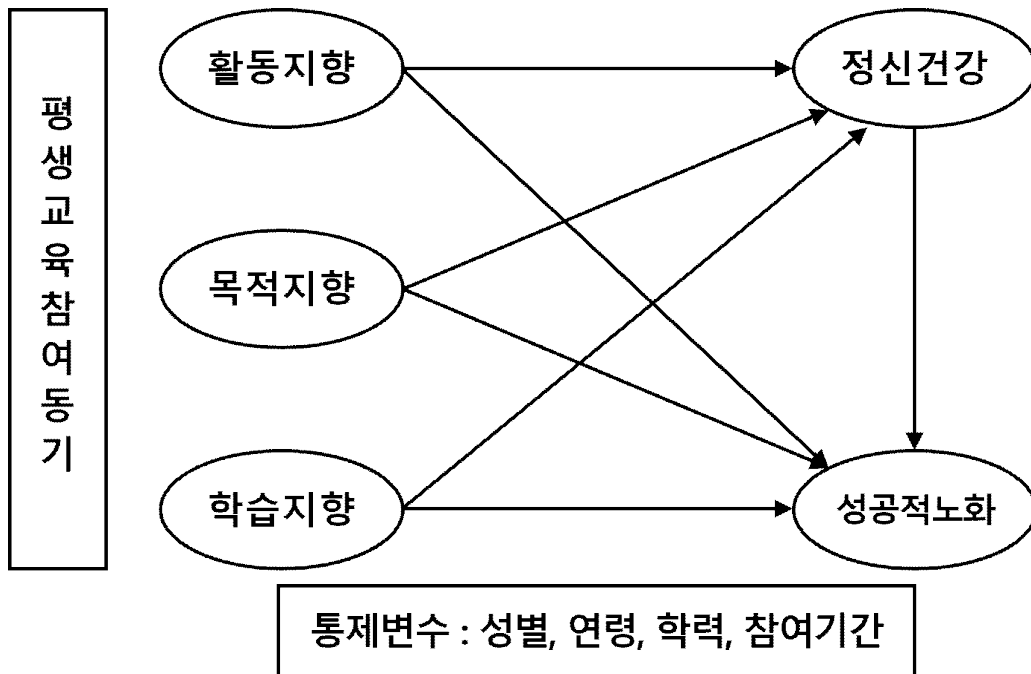
중장년들이 길어진 노년기 동안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을 지속해서 병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은 자신의 삶이 기본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긴장을 잘 극복하여 정서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기반으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긍정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유형이다(유수현 외, 2010).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령대의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우울과 인지기능 저하는 노년기에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중장년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따라서 중장년에게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중장년의 정신건강의 큰 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간의 관계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을 독립변수로, 성공적 노화를 종속변수로, 정신건강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두 변수 사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몇 가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수를 두었다. 본 연구를 검증하는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수집 과정은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7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설문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많아 신뢰성이 결여된 17부를 제외하고 총 36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Houle(1961)의 참여동기 이론과 Boshier(1985)의 EPS를 근거로 하여 개발된 최운실(1988)의 조사지를 바탕으로 차윤지(2011)가 재구성한 조금순(2014)의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활동지향 5문항, 목적지향 5문항, 학습지향 5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활동지향 .771, 목적지향 .736, 학습지향 .824이며, 전체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5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참여동기 측정 도구는 <표 4>와 같다.

<표 4>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i>a</i>
활동지향	1 - 5	5	.771
목적지향	6 - 10	5	.736
학습지향	11 - 15	5	.824
전체		15	.855

2) 종속변수 : 성공적 노화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고자 김동배(2008)가 개발한 척도, 서은경(2011)의 성공적 노화 요인 연구척도, 그리고 우무희(2017)의 연구척도 29문항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인 삶 9문항, 자기완성 지향 6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4문항, 자기수용 5문항, 타인수용 5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5단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공적 노화의 신뢰도 Cronbach's *a* 값은 자율적인 삶 .806, 자기완성 지향 .774, 자녀에 대한 만족 .853, 자기수용 .842, 타인수용 .826이며, 전체 성공적 노화의 Cronbach's *a* 값은 .92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표 5> 와 같다.

<표 5> 성공적 노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i>a</i>
자율적인 삶	1 - 9	9	.806
자기완성 지향	10 - 15	6	.774
자녀에 대한 만족	16 - 19	4	.853
자기수용	20 - 24	5	.842
타인수용	25 - 29	5	.826
전체		29	.928

3) 매개변수 : 정신건강

중장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Kessler의 복지감 척도와 SCL-90 하위척도를 Choi가 번역하고 성명옥·신윤아·이혜자(2003)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인 심리적 복지감 6문항과 부정적 문항인 우울감 10문항 등 2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우울 10문항은 모두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의 신뢰도 Cronbach's *a* 값은 심리적 복지감 .892, 우울 .863이며, 전체 정신건강 Cronbach's *a* 값은 .90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정신건강 척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정신건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i>a</i>
심리적 복지감	1 - 6	6	.892
우울감	7 - 16	10	.863
전체		16	.903

주) 우울감 모든 문항 역코딩 함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성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목적과 참여기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일원변량분석 결과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사후검증 방법으로 다중 비교하였다.

넷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인자(VIF) 확인하였다.

다섯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²⁾를 실시하여 매개효과 검증 확인하였다.

2)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를 그 표준오차로 나눈 검증치의 유의도를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Z값의 절대값이 1.96($p < .001$)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Sobel, 1982; 전순득, 2022).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건강, 참여목적, 참여 기간, 참여횟수, 참여기관 등 9개 항목이며 그 특성은 <표 7> 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168명(46.7%), 여성 192명(53.3%)으로 여성이 조금 많으며, 연령은 40세-45세 73명(20.3%), 46세-50세 66명(18.3%), 51세-55세 88명(24.4%), 56세-64세 133명(36.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100명(27.8%), 전문대졸 83명(23.1%), 대졸 126명(35.0%), 대학원 이상 51명(14.2%), 결혼상태는 기혼 329명(91.4%)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65명(18.1%), 건강하다 180명(50.0%), 보통이다 100명(27.8%), 건강이 좋지 않다 15명(4.2%)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목적으로는 직무역량 강화 38명(10.6%),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215명(59.7%), 건강을 위해서 19명(5.3%), 학력 보완을 위해서 6명(1.7%), 취미 또는 여가생활 82명(22.8%)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은 1년 미만 173명(48.1%), 1년 이상~3년 미만 112명(31.1%), 3년 이상~5년 미만 46명(11.9%), 5년 이상 32명(8.9%)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횟수로는 15회 이상 54명(15.0%), 10회 이상 62명(17.2%), 5회 이상 90명(25.0%), 1회 이상 154명(42.8%)이며, 주로 이용하는 평생교육 운영기관으로는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114명(31.7%),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52명(14.4%), 공공기관 평생 교육기관 85명(23.6%), 직업훈련 및 연수형 평생 교육기관 22명(6.1%), 시민사회 단체형 평생 교육기관 35명(9.7%), 기타 52명(14.4%)으로 나타났다.

<표 7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60)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8	46.7
	여성	192	53.3
연령	40~45세	73	20.3
	46~50세	66	18.3
	51~55세	88	24.4
	56~64세	133	36.9
학력	고졸 이하	100	27.8
	전문대학교졸업	83	23.1
	4년제 대학교졸업	126	35.0
	대학원 이상	51	14.2
결혼상태	기혼	329	91.4
	미혼	8	2.2
	사별	8	2.2
	기타	15	4.2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5	18.1
	건강하다	180	50.0
	보통이다	100	27.8
	건강이 좋지않다	15	4.2
평생교육에 참여한 목적	직무역량 강화	38	10.6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215	59.7
	건강을 위해서	19	5.3
	학력 보완을 위해서	6	1.7
	취미 또는 여가생활	82	22.8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173	48.1
	1년이상-3년미만	112	31.1
	3년이상-5년미만	46	11.9
	5년이상	32	8.9
평생교육에 참여한 횟수	15회이상	54	15.0
	10회이상	62	17.2
	5회이상	90	25.0
	1회이상	154	42.8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관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114	31.7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52	14.4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85	23.6
	직업훈련 및 연수형 평생교육기관	22	6.1
	시민사회단체형 평생교육기관	35	9.4
	기타	52	14.4
전체		360	100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1)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의 수준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각 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변수 기술통계

(N=360)

구분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평생교육 참여동기	활동지향	1.40	5.00	3.64	.65	-.22	.39
	목적지향	2.00	5.00	3.63	.66	.08	-.46
	학습지향	1.80	5.00	3.87	.67	-.32	-.14
	참여동기 전체	1.87	5.00	3.71	.52	.09	.06
성공적 노화	자율적인 삶	2.56	5.00	3.89	.50	-.07	-.04
	자기완성 지향	1.83	5.00	3.76	.58	-.03	-.02
	자녀에 대한 만족	1.00	5.00	3.97	.64	-.41	.50
	자기수용	2.00	5.00	3.86	.59	-.28	.01
	타인수용	1.60	5.00	3.66	.58	.14	.20
	성공적 노화 전체	2.62	5.00	3.83	.45	.07	.02
정신 건강	심리적 복지감	1.00	5.00	3.71	.65	-.29	.26
	우울감	2.20	5.00	3.92	.61	-.28	-.39
	정신건강 전체	2.13	4.94	3.84	.55	-.28	-.29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균은 3.71($SD=.52$)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소값 1.87, 최

대값 5.00), 성공적 노화도 평균 3.83($SD=.45$)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소값 2.62, 최대값 5.00), 정신건강도 평균 3.84($SD=.55$)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소값 2.13, 최대값 4.94).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41 \sim .14$ 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46 \sim .50$ 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의 원칙 ($-2 \sim +2$)을 벗어나지 않아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ameron, 2004). 변인들의 하위요인별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은 학습지향($M=3.87, SD=.67$), 활동지향($M=3.64, SD=.65$), 목적지향($M=3.63, SD=.66$)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 하위요인은 자녀에 대한 만족($M=3.97, SD=.64$), 자율적인 삶($M=3.89, SD=.50$), 자기 수용($M=3.86, SD=.59$), 자기완성 지향($M=3.76, SD=.58$), 타인 수용($M=3.66, SD=.58$)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하위요인은 부정 문항인 우울감이 역코딩 되어 ($M=3.92, SD=.61$), 긍정 문항인 심리적 복지감($M=3.71, SD=.65$)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분석에 앞서 평생교육 참여목적과 참여기관 차이를 먼저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장년들의 평생교육 참여목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1	2	3	4	5	χ^2
성별	남성	168	18(10.7)	89(53.0)	11(6.5)	2(1.2)	48(28.6)	8.44
	여성	192	20(10.4)	126(65.6)	8(4.2)	4(2.1)	34(17.7)	
연령	40세~45세	73	9(12.3)	39(53.4)	3(4.1)	4(5.5)	18(24.7)	16.75
	46세~50세	66	7(10.6)	43(65.2)	4(6.1)	- -	12(18.2)	
	51세~55세	88	9(10.2)	58(65.9)	2(2.3)	2(2.3)	17(19.3)	
	56세~64세	133	13(9.8)	75(56.4)	10(7.5)	- -	35(2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8(8.0)	48(48.0)	11(11.0)	1(1.0)	32(32.0)	39.94***
	전문대졸	83	17(20.5)	45(54.2)	4(4.8)	3(3.6)	14(16.9)	
	대학졸	126	6(4.8)	92(73.0)	3(2.4)	- -	25(19.8)	
	대학원 이상	51	7(13.7)	30(58.8)	1(2.0)	2(3.9)	11(21.6)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65	12(18.5)	36(55.4)	3(4.6)	- -	14(21.5)	15.69
	건강하다	180	16(8.9)	116(64.4)	8(4.4)	2(1.1)	38(21.1)	
	보통이다	100	8(8.0)	54(54.0)	6(6.0)	4(4.0)	28(28.0)	
	건강이좋지않다	15	2(13.3)	9(60.0)	2(13.3)	- -	2(13.3)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173	17(9.8)	99(57.2)	7(4.0)	3(1.7)	47(27.2)	8.61
	1년~3년미만	112	9(8.0)	71(63.4)	8(7.1)	1(0.9)	23(20.5)	
	3년 이상	75	12(16.0)	45(60.0)	4(5.3)	2(2.7)	12(16.0)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116	13(11.2)	76(65.5)	8(6.9)	- -	19(16.4)	29.87***
	5회 이상	90	12(13.3)	57(63.3)	7(7.8)	4(4.4)	10(11.1)	
	1회 이상	154	13(8.4)	82(53.2)	4(2.6)	2(1.3)	53(34.4)	

*** $p < .001$

주) 1. 직무역량 강화 2.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3. 건강을 위해서
 4. 학력 보완을 위해서 5. 취미 또는 여가생활
 빈도(백분율)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목적의 차이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참여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학력($\chi^2 = 39.94, p < .001$), 참여한 횟수($\chi^2 = 29.87, p < .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기관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장년들의 평생교육 운영기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10>와 같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의 평생교육 운영기관의 차이는 성별, 연령, 참여한 기간, 참여한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학력($\chi^2= 39.34, p<.001$), 건강상태($\chi^2= 33.277,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기관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1	2	3	4	5	6	χ^2
성별	남성	168	43(25.6)	28(16.7)	41(24.4)	12(7.1)	18 (10.7)	2(15.5)	5.92
	여성	192	71(37.0)	24(12.5)	44(22.9)	10(5.2)	17 (8.9)	2(13.5)	
연령	40세~45세	73	23(31.5)	15(20.5)	14(19.2)	4(5.5)	2 (2.7)	1(20.5)	17.12
	46세~50세	66	23(34.8)	5(7.6)	17(25.8)	6(9.1)	5 (7.6)	1(15.2)	
	51세~55세	88	26(29.5)	11(12.5)	17(25.8)	6(9.1)	5 (7.6)	1(15.2)	
	56세~64세	133	42(31.6)	21(15.8)	29(21.8)	6(4.5)	18 (13.5)	1(12.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36(36.0)	6(6.0)	19(19.0)	5(5.0)	20 (20.0)	1(14.0)	39.34***
	전문대졸	83	23(27.7)	16(19.3)	16(19.3)	10(12.0)	5 (6.0)	1(15.7)	
	대학졸	126	43(34.1)	19(15.1)	35(27.8)	6(4.8)	9 (7.1)	1(11.1)	
	대학원 이상	51	12(23.5)	11(21.6)	15(29.4)	1(2.0)	1 (2.0)	1(21.6)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65	16(24.6)	9(13.8)	14(21.5)	10(15.4)	6 (9.2)	1(15.4)	33.27***
	건강하다	180	59(32.8)	25(13.9)	55(30.6)	6(3.3)	13 (7.2)	2(12.2)	
	보통이다	100	34(34.0)	18(18.0)	15(15.0)	5(5.0)	12 (12.0)	1(16.0)	
	건강이 좋지 않다	15	5(33.3)	-	1(6.7)	1(6.7)	4 (26.7)	1(26.7)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173	59(34.1)	23(13.3)	34(19.7)	11(6.4)	19 (11.0)	2(15.6)	5.64
	1년~3년 미만	112	36(32.1)	18(16.1)	28(25.0)	7(6.3)	9 (8.0)	1(12.5)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3년 이상	75	19(25.3)	11(14.7)	23(30.7)	4(5.3)	7 (9.3)	1(14.7)	9.65
	10회 이상	116	36(31.0)	14(12.1)	32(27.6)	7(6.0)	14 (12.1)	1(11.2)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5회 이상	90	28(31.1)	16(17.8)	22(24.4)	8(8.9)	6 (6.7)	1(11.1)	9.65
	1회 이상	154	50(32.5)	22(14.3)	31(20.1)	7(4.5)	15 (9.7)	2(18.8)	

*** p<.001

- 주) 1.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2.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3.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4. 직업훈련 및 연수형 평생교육기관
 5. 시민사회단체형 평생교육기관 6. 기타
 빈도(백분율)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one-way ANOVA 분석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하여 집단 간 다중비교 하였다. 분석에 앞서 평생교육 참여목적은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 취미 또는 여가생활, 기타(직무역량 강화, 건강을 위해, 학력 보완을 위해서)로, 참여한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집단으로 조정하였고,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도 1회 이상, 5회 이상, 10회 이상 집단으로 조정하였으며, 참여 운영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학교부설·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과 민간기관(직업훈련 및 연수형·시민사회단체형·기타 평생 교육기관)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활동지향 인식의 차이

중장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활동지향 인식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M	SD	T/F
성별	남성	168	3.62	.64	-.372
	여성	192	3.65	.66	
연령	40세~45세	73	3.59	.64	.653
	46세~50세	66	3.57	.65	
	51세~55세	88	3.64	.70	
	56세~64세	133	3.64	.6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3.68	.65	1.442
	전문대졸	83	3.61	.64	
	대학졸	126	3.68	.62	
	대학원 이상	51	3.47	.73	
평생교육 참여목적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215	3.69	.65	1.512
	취미 또는 여가생활	82	3.57	.56	
	기타	63	3.56	.73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173	3.61	.64	.321
	1년 이상~3년 미만	112	3.66	.57	
	3년 이상	75	3.67	.77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116	3.68	.74	1.060
	5회 이상	90	3.68	.60	
	1회 이상	154	3.58	.60	
참여 운영기관	공공기관	251	3.58	.62	-2.711**
	민간기관	109	3.78	.70	

** $p<.01$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차이에서는 공공기관($M=3.58$, $SD=.62$)보다 민간기관($M=3.78$, $SD=.70$)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11$, $p<.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목적지향 인식의 차이

중장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목적지향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참여목적, 참여한 기간, 참여한 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목적지향 인식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목적지향 인식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M	SD	T/F
성별	남성	168	3.50	.69	-3.758***
	여성	192	3.75	.61	
연령	40세~45세	73	3.67	.70	1.216
	46세~50세	66	3.70	.68	
	51세~55세	88	3.68	.68	
	56세~64세	133	3.55	.6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3.49	.65	2.744*
	전문대졸	83	3.76	.66	
	대졸	126	3.65	.67	
	대학원 이상	51	3.67	.61	
평생교육 참여목적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b	215	3.72	.63	11.826***
	취미 또는 여가생활 ^a	82	3.33	.61	
	기타 ^b	63	3.73	.69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a	173	3.59	.66	4.182*
	1년 이상~3년 미만 ^a	112	3.57	.63	
	3년 이상 ^b	75	3.83	.66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116	3.73	.71	3.029*
	5회 이상	90	3.66	.64	
	1회 이상	154	3.54	.61	
참여 운영기관	공공기관	251	3.64	.66	.262
	민간기관	109	3.62	.66	

* $p < .05$, ** $p < .01$, *** $p < .001$

상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성($M=3.50$, $SD=.69$)보다 여성($M=3.75$, $SD=.61$)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58$,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문대졸($M=3.76$, $SD=.66$), 대학원 이상($M=3.67$, $SD=.61$), 대졸($M=3.65$, $SD=.67$), 고졸 이하($M=3.49$, $SD=.65$) 순으로 높게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2.744, p<.05$),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목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M=3.72, SD=.63$), 기타($M=3.73, SD=.69$), 취미 또는 여가생활($M=3.33, SD=.61$)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1.826,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취미 또는 여가생활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3년 이상($M=3.83, SD=.66$), 1년 미만($M=3.59, SD=.66$), 1년 이상~3년 미만($M=3.57, SD=.63$)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4.182, p<.05$),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3년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10회 이상($M=3.73, SD=.71$), 5회 이상($M=3.66, SD=.64$), 1회 이상($M=3.54, SD=.61$)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029, p<.05$),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학습지향 인식의 차이
중장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학습지향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참여목적, 참여한 기간, 참여한 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학습지향 인식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하위요인 학습지향 인식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M	SD	T/F
성별	남성	168	3.67	.69	-5.242***
	여성	192	4.04	.61	
연령	40세~45세	73	3.83	.72	.140
	46세~50세	66	3.89	.71	
	51세~55세	88	3.90	.65	
	56세~64세	133	3.86	.64	
최종학력	고졸 이하 ^a	100	3.68	.69	5.020** a<b
	전문대졸 ^b	83	4.06	.62	
	대졸 ^{ab}	126	3.87	.67	
	대학원 이상 ^{ab}	51	3.92	.63	
평생교육 참여목적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b	215	4.00	.63	11.950*** a<b
	취미 또는 여가생활 ^a	82	3.61	.62	
	기타 ^a	63	3.73	.75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a	173	3.75	.70	5.363** a<b
	1년 이상~3년 미만 ^{ab}	112	3.93	.62	
	3년 이상 ^b	75	4.04	.63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b	116	4.06	.67	8.733*** a<b
	5회 이상 ^{ab}	90	3.88	.67	
	1회 이상 ^a	154	3.72	.64	
참여 운영기관	공공기관	251	3.87	.66	.225
	민간기관	109	3.86	.70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성($M=3.67$, $SD=.69$)보다 여성($M=4.04$, $SD=.61$)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242$,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문대졸($M=4.06$, $SD=.62$), 대학원 이상($M=3.92$, $SD=.63$), 대졸($M=3.87$, $SD=.67$), 고졸 이하($M=3.68$, $SD=.69$)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020$, $p<.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전문대졸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목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M=4.00$, $SD=.63$), 기타($M=3.73$, $SD=.75$), 취미 또는 여가생활($M=3.61$, $SD=.62$)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1.950$,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3년 이상($M=4.04$, $SD=.63$), 1년 이상~3년 미만($M=3.93$, $SD=.62$), 1년 미만($M=3.75$, $SD=.70$)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363$, $p<.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3년 이상 집단과 1년 미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10회 이상($M=4.06$, $SD=.67$), 5회 이상($M=3.88$, $SD=.67$), 1회 이상($M=3.72$, $SD=.64$)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733$,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10회 이상 집단과 1회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

중장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참여목적, 참여한 기간, 참여한 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M	SD	T/F
성별	남성	168	3.72	.46	-4.238***
	여성	192	3.92	.43	
연령	40세 ~ 45세	73	3.76	.45	.713
	46세 ~ 50세	66	3.86	.44	
	51세 ~ 55세	88	3.86	.44	
	56세 ~ 64세	133	3.83	.47	
최종학력	고졸 이하 ^a	100	3.67	.47	6.126***
	전문대졸 ^b	83	3.89	.43	
	대졸 ^{ab}	126	3.86	.44	
	대학원 이상 ^b	51	3.96	.42	
평생교육 참여목적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b	215	3.90	.44	7.461***
	취미 또는 여가생활 ^a	82	3.69	.45	
	기타 ^{ab}	63	3.77	.44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a	173	3.73	.46	10.281***
	1년 이상 ~ 3년 미만 ^{ab}	112	3.86	.41	
	3년 이상 ^b	75	4.00	.45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b	116	4.00	.45	12.883***
	5회 이상 ^a	90	3.78	.41	
	1회 이상 ^a	154	3.73	.44	
참여 운영기관	공공기관	251	3.87	.51	1.132
	민간기관	109	3.79	.64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성($M=3.72$, $SD=.46$)보다 여성($M=3.92$, $SD=.43$)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238$,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에서는 대학원 이상($M=3.96$, $SD=.45$), 전문대졸($M=3.89$, $SD=.43$), 대졸($M=3.86$, $SD=.44$), 고졸 이하($M=3.67$, $SD=.4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6.126$,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대학원 이상 및 전문대졸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목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M=3.90$, $SD=.44$), 기타($M=3.77$, $SD=.44$), 취미 또는 여가생활($M=3.69$, $SD=.45$)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0.281$, $p<.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 집단과 취미 또는 여가생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3년 이상($M=4.00$, $SD=.45$), 1년 이상~3년 미만($M=3.86$, $SD=.41$), 1년 미만($M=3.73$, $SD=.46$)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0.281$,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3년 이상 집단과 1년 미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10회 이상($M=4.00$, $SD=.45$), 5회 이상($M=3.78$, $SD=.41$), 1회 이상($M=3.73$, $SD=.44$)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2.883$,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 10회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

중장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과 참여한 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최종학력, 참여목적, 참여한 기간, 참여 운영기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인식의 차이

(N=360)

구분	소분류	n	M	SD	T/F
성별	남성	168	3.76	.57	-2.726**
	여성	192	3.92	.54	
연령	40세~45세	73	3.71	.57	1.784
	46세~50세	66	3.87	.55	
	51세~55세	88	3.86	.50	
	56세~64세	133	3.89	.5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3.75	.59	1.321
	전문대졸	83	3.87	.53	
	대졸	126	3.88	.56	
	대학원 이상	51	3.89	.50	
평생교육 참여목적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	215	3.87	.54	.812
	취미 또는 여가생활	82	3.79	.59	
	기타	63	3.81	.56	
평생교육 참여한 기간	1년 미만	173	3.79	.58	1.623
	1년이상~3년 미만	112	3.91	.53	
	3년 이상	75	3.87	.53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	10회 이상	116	3.95	.55	3.282*
	5회 이상	90	3.81	.51	
	1회 이상	154	3.78	.57	
참여 운영기관	공공기관	251	3.84	.43	.939
	민간기관	109	3.79	.50	

* $p < .05$, ** $p < .01$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성($M=3.76$, $SD=.57$)보다 여성($M=3.92$, $SD=.54$)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6$, $p < .01$).

평생교육 참여한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10회 이상($M=3.95, SD=.55$), 5회 이상($M=3.81, SD=.51$), 1회 이상($M=3.78, SD=.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282, p<.05$),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관관계분석

1)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16>과 같다.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성공적 노화($r=.51, p<.01$)와 정신건강($r=.29, p<.01$)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도 정신건강($r=.58, p<.01$)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성공적 노화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자기수용($r=.45, p<.001$), 자기완성 지향($r=.43, p<.001$), 자율적인 삶($r=.40, p<.001$), 타인수용($r=.40, p<.001$), 자녀에 대한 만족($r=.3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심리적 복지감($r=.40, p<.001$), 우울감($r=.1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학습지향($r=.50, p<.001$), 목적지향($r=.38, p<.001$), 활동지향($r=.3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심리적 복지감($r=.63, p<.001$), 우울감($r=.44,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학습지향($r=.28$, $p<.001$), 활동지향($r=.22$, $p<.001$), 목적지향($r=.19$,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자기수용($r=.58$, $p<.001$), 자율적인 삶($r=.48$, $p<.001$), 자녀에 대한 만족($r=.45$, $p<.001$), 타인수용($r=.42$, $p<.001$), 자기완성 지향($r=.3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N=360)

척도명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참 여 동 기	1. 활동지향	1											
	2. 목적지향	.37***	1										
	3. 학습지향	.41***	.51***	1									
	4. 참여동기 전체	.75***	.79***	.81***	1								
성 공 적 노 화	5. 자율적인 삶	.27***	.30***	.38***	.40***	1							
	6. 자기완성 지향	.17**	.38***	.45***	.43***	.61***	1						
	7. 자녀에 대한 만족	.24***	.22***	.33***	.33***	.52***	.40***	1					
	8. 자기수용	.28***	.33***	.46***	.45***	.60***	.62***	.54***	1				
	9. 타인수용	.29***	.27***	.38***	.40***	.51***	.50***	.47***	.64***	1			
	10. 성공적 노화 전체	.31***	.38***	.50***	.51***	.85***	.80***	.70***	.84***	.76***	1		
정 신 건 강	11. 심리적 복지감	.29***	.27***	.38***	.40***	.50***	.46***	.46***	.63***	.47***	.63***	1	
	12. 우울감	.14**	.11*	.16**	.17**	.37***	.28***	.37***	.44***	.32***	.44***	.56***	1
	13. 정신건강 전체	.22***	.19***	.28***	.29***	.48***	.39***	.45***	.58***	.42***	.58***	.82***	.93***

* $p < .05$, ** $p < .01$, *** $p < .001$

5. 매개효과 검증

1)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및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³⁾을 확인하고자 Durbin -Watson 값과 공차(tolerance) 및 분산팽창지수인 VIF 값을 먼저 확인하였다.

변수들의 공차 값은 .619~.952로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 값도 1.051~1.581로 10보다 현저히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698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문제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했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제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검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활동지향($\beta=.137, p<.05$), 학습지향($\beta=.174, p<.01$)은 매개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정신건강을 1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6.930, p<.001$), 목적지향($\beta=.038,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에서는 연령($\beta=.111, p<.05$)과 학력($\beta=.10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다중회

3) 다중공선성 :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을 의미함. 독립변수끼리 유사성이 너무 높으면 서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허용도, TOL)를 통하여 판단하며, VIF 10미만, TOL 0.1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없다고 판단함(송지준, 2013).

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활동지향($\beta=.137$, $p<.01$), 목적지향($\beta=.124$, $p<.05$), 학습지향($\beta=.327$, $p<.001$)은 종속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를 3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5.463$, $p<.001$). 또한, 통제변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beta=.092$, $p<.05$)이, 학력($\beta=.156$, $p<.01$), 참여기간($\beta=.11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목적지향($\beta=.107$, $p<.05$), 학습지향($\beta=.249$, $p<.001$), 매개변수인 정신건강($\beta=.449$, $p<.001$)은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를 5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6.236$, $p<.001$), 활동지향($\beta=.07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에서는 학력($\beta=.110$, $p<.01$)과 참여기간($\beta=.11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이 종속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모두 감소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조건을 충족시켰다. 활동지향은 2단계($\beta=.137$, $p<.01$)에서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3단계($\beta=.076$, $p>.05$)에서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정신건강은 활동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은 2단계($\beta=.327$, $p<.001$)보다 3단계($\beta=.249$, $p<.001$)에서 영향력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은 학습지향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적지향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활동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이들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활동지향의 간접효과는 .06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 2.338$, $p<.05$).

<표 17>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N=360)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 매개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 종속			
	B	β	t	B	β	t	B	β	t	
통 계	상수	2.420		10.879***	1.938		12.267***	1.051		6.708***
	성별여성더미	.100	.090	1.692	.083	.092	1.970	.046	.051	1.273
	연령	.054	.111	2.173*	.021	.052	1.179	.001	.003	.067
	학력	.055	.103	1.976*	.069	.156	3.448**	.048	.110	2.815**
	참여기간	-.003	-.005	-.087	.068	.117	2.586*	.069	.119	3.068**
독립 변수	활동지향	.117	.137	2.393*	.096	.137	2.763**	.053	.076	0.767
	목적지향	.032	.038	.629	.086	.124	2.368*	.074	.107	2.381*
	학습지향	.143	.174	2.766**	.220	.327	5.980***	.168	.249	5.251***
매개변수	정신건강						.367	.449	11.294***	
	R^2		.121			.336			.513	
	Adjusted R^2		.104			.323			.502	
	F		6.930***			25.463***			46.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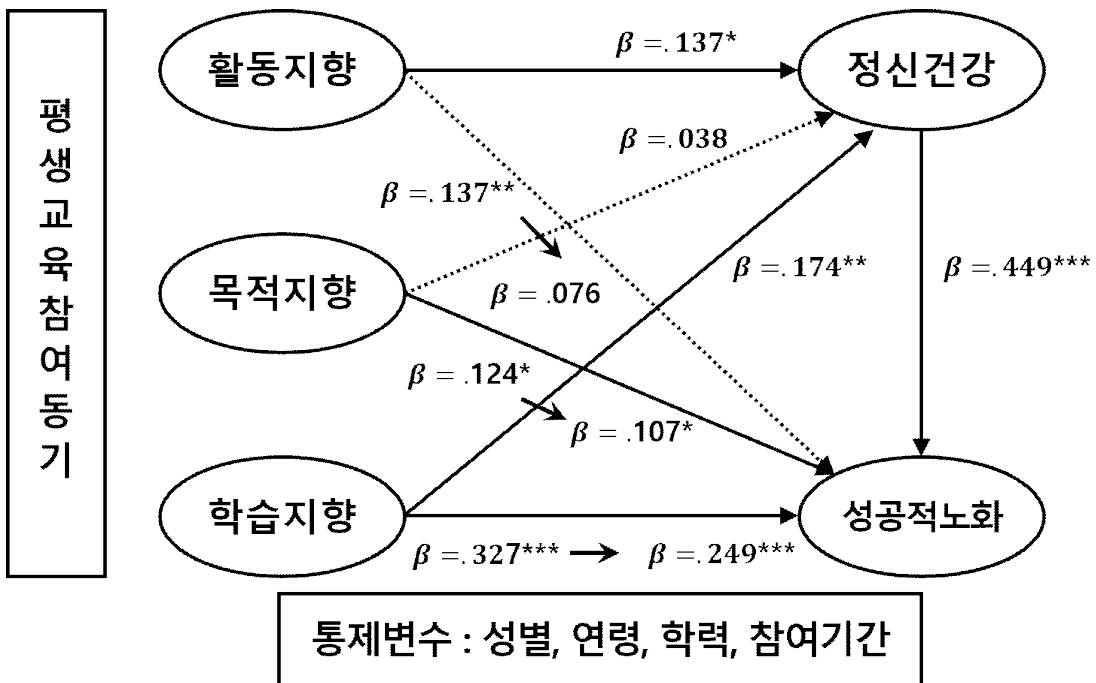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 더미성별: 여=1, 남=0

학습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이들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249, 간접효과는 .0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 2.674, p<.01$).

하지만 목적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의 간접효과는 .01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Z= .627, p>.05$).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하위요인 중 활동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이들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학습지향과 성공적 노화관계에서 정신건강은 이들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적지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이들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습지향의 참여동기는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총효과가 .327로 활동지향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검증

<표 18>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와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Sobel test

매개효과 경로	Z검증	p	가설검증
활동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	2.338*	0.019	채택
목적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	.627	0.531	기각
학습지향 → 정신건강 → 성공적 노화	2.674**	0.007	채택

* $p < .05$, ** $p < .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장년의 정신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장년의 평생교육의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정신건강은 매개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확인하고 변인 간 관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중장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먼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분석, 독립표본 t-test,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연구문제의 변수 간 영향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이 46.7%(168명), 여성이 53.3%(192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56세에서 64세가 36.9%(133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교졸업이 35%(126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91.4%(329명)로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자가 50%(180명)로 가장 많았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목적으로는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이 59.7%(215명)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 기간은 1년 미만이 48.1%(173명)로 가장 많았다. 참여 횟수는 1회 이상 5회 미만 48.1%로 가장 많았고, 조사 대상자 중장년 학습자 중 55.3%는 민간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학습지향($M=3.87$, $SD=.67$)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녀에 대한 만족($M=3.97$, $SD=.64$)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하위요인은 부정 문항인 우울감이 역코딩 되어 ($M=3.92$, $SD=.61$), 긍정 문항인 심리적 복지감($M=3.71$, $SD=.65$)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장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목적의 차이는 최종학력($\chi^2= 39.94$, $p<.001$), 참여한 횟수($\chi^2= 29.87$,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참여목적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외 목적으로는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취미 또는 여가생활의 목적이 높았고, 전문대졸 집단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 높았으며, 대졸이상 집단은 자기계발을 위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횟수는 취미 또는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지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나타났고,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참여한 중장년은 10회 이상의 지속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중장년들의 평생교육은 취미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장년들의 정신건강이나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장년들이 학습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은 참여기관에 따른 특성에서 공공기관($M=3.58$, $SD=.62$)보다 민간기관($M=3.78$, $SD=.70$)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목적지향을 높게 인식하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대학원, 대졸, 고졸 이하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하여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목적, 참여기간, 참여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지향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학습지향을 높게 인식하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대학원, 대졸, 고졸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전문대졸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서는 여성 ($M=3.92$, $SD=.43$)이 남성 ($M=3.72$, $SD=.46$)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 ($M=3.96$, $SD=.42$)이, 평생교육 참여목적에서도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감 ($M=3.90$, $SD=.44$)이, 참여 기간에서도 3년 이상 ($M=4.00$, $SD=.45$) 집단이, 참여횟수에서도 10회 이상 ($M=4.00$, $SD=.45$) 집단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건강 인식에서는 여성 ($M=3.92$, $SD=.54$)이 남성 ($M=3.76$, $SD=.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횟수에서도 10회 이상 ($M=3.95$, $SD=.55$) 집단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중장년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들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활동지향($\beta=.137$, $p<.05$), 학습지향($\beta=.174$, $p<.01$)은 매개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정신건강을 12.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6.930$, $p<.001$), 목적지향($\beta=.038$,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에서는 연령과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활동지향($\beta=.137$, $p<.01$), 목적지향($\beta=.124$, $p<.05$), 학습지향($\beta=.327$, $p<.001$)은 종속변수인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를 33.6%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5.463$, $p<.001$), 통제변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학력과 참여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목적지향($\beta=.107$, $p<.05$), 학습지향($\beta=.249$, $p<.001$), 매개변수인 정신건강($\beta=.449$, $p<.001$)은 중장년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를

51.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46.236, p<.001$), 활동지향($\beta=.07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에서는 학력과 참여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건강은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였고, 학습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지향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을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총효과 .327로 활동지향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목적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에게 있어 평생교육 참여동기(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에서 중장년 학습자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 하위요인 중 학습지향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지향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김삼덕, 2012; 김정경·한상훈, 2013; 김라경·김사라,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더 많이 인식함을 의미한다.

둘째, 중장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 역할을 일부 확인하였다. 참여동기의 학습지향 동기, 활동지향 동기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채택되었다. 이는 학습지향인 유형으로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김경호·김지훈 2008; 이윤지, 2013)와 유사함을 알 수 있고 또한, 활동지향 동기가

성공적 노화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백경신 외(2007)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목적지향 동기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어서 매개효과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같이 정신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매개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평생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고, 학습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지향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을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총효과 .327로 활동지향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생교육의 참여동기(학습지향)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심리적 복지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으며 정신건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향상시키며 심리적 복지감은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어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때 중장년의 성공적 노화의 수준을 고려하여 실천 방안을 접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중장년에 있어서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적인 노화로 더 많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3. 제언 및 한계

앞서 논의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습지향에서는 성별과 최종학력, 참여목적,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참여동기 유형에 영향을 받았으나 한 유형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고 각 집단에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한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장년에게 맞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학습지향이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동기(활동지향, 목적지향, 학습지향)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따라서 중장년 남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및 욕구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장년 여성이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장년 남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준비를 위한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정신건강과 성공적 노화준비에 관한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배움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계발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지향 동기, 다양한 활동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지향 동기, 명백한 목표를 지닌 목적지향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미래의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대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공약 중 공공영역에서 전 국민 평생교육 역량개발 방안과 일터-대학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이 수립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학습지향동기 및 목적지향동기와 관련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찾아오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율은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중장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과정과 스트레스의 근원이 외적, 내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인 제한점으로 중장년의 세대 특성상 성공적 노화의 결과를 보기에는 여러 시점에 걸친 종단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중장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횡단적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라는 연구결과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확실한 방향성과 검증을 위하여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는 학습지향과 활동지향은 영향을 미쳤으나 목표지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지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사용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중장년에 특성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가족구조, 고령 인구 등 시대적 변화로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고, 정신건강 또한 우울감 부정 측면과 심리적 복지 긍정 측면의 두 가지 측면만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근 성인교육은 고용과 복지 등의 여러 분야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일생에 걸쳐 참여

하도록 확산시키고 중장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되
길 바라며 더 나아가 중장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의 기초 자료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개발하고 이에 관련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옥·하규수. 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121-144.
- 강옥주. 2020. “노인평생교육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은지. 2021. “농촌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연령의 관계: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2): 95-116.
- 강인. 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고관우. 202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삶의 안정과 상생발전” 제주일보 1월9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151>
- 공경자·주동범. 2021. “동화구연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1): 17-34.
- 곽삼근. 2005.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 11(11): 91-111.
- 교육학사전. 2011. 『서울대학연구소』. <https://terms.naver.com/list.nhn>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학습설계 로드맵”. <https://www.nile.or.kr/>.검색일 2021.1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권영선. 2019.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인권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준혁. 2019. “중장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 및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채영. 2008. “대학생의 자기위로, 자기격려, 자기수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65-76.
- 김경신·김정란.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4): 105-120.

- 김경호·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 김나영·강정은. 2011. “여성 평생교육참가자의 참여동기, 기관의 지원, 만족도, 학습성과 간의 관계 규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958-968.
- 김남순. 2017.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과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희. 2019.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명. 2015.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자기주도학습이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서비스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동배. 2012.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32(1): 289-303.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2020. “평생교육이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셀프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미혜·정순돌·박현주. 2014.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 미국, 영국 고령화패널 비교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6(2): 987-1005.
- 김보미. 2018.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사라·김라경. 2016.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0): 23-33.
- 김삼덕. 2013.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이 성공적 노화의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석일. 2012.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지지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1): 333-344.
- 김영미·한상훈. 2012. “성인학습자의 자아개념, 참여동기 및 학습참여도와 평생학습 성과의 구조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33(2): 123-143.
- 김오복. 2007. “여성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영·한상훈. 2013.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4(2): 179-208
- 김정주. 2018. “중년여성의 빈둥지시기 경험 탐색과 평생교육학적 제안”. 『한국교육학연구』 24(1): 147-172.
- 김중혜·강운선. 2013.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사회과교육』 52(4): 49-60.
- 김진화. 2007.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3: 89-122.
- 김진환. 2016. “뉴실버세대 사회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7: 108-135.
- 김태현·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혜경. 2007. “저소득 노인의 건강행동과 신체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규. 2020.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2020. “교회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 학습몰입, 참여지속의도 간의 구조분석”.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은. 2017. “중장년층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주택선호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효선. 2018. “평생교육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 22(3): 53-66.
- 박경희. 2020.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조. 2016.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농간 비교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1.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이론의 재검토”. 『인간발달연구』 8(2): 49-64.
- 박윤희. 2017. “중년기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교육의 매개효과 검증”.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성. 2010. “성공적인 노화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중장년기 여가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동·이희수. 2011. “성인학습자의 공식적 CoP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K은행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3: 83-107.
- 배아람. 2015.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권용신.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변정희. 2022. “중장년 학습자의 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0. 『2020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http://www.mw.go.kr/>
- 서명환. 2011.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혜연·이성규. 2019.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조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내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47(4): 5-33.
-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2): 75-93.
- 송영순. 2019. “기혼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지준. 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신은정. 2012.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주연·이윤아·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 1035-1057.
- 신학진·전상남.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46: 29-51.
- 안범희·엄윤재. 2015.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무조건적 자기수용,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차이 분석”. 『공공사회연구』 5(2): 96-124.
- 안은미. 2021. “노후준비교육 참여 중년여성의 예기적 사회화 인식 변화”.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은미·허정무. 2015.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1(1): 91-111.
- 안정신·강인·김운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양윤희. 2021. “신노년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평생교육(SALLE) 모델 개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진욱. 2019. “대학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 참여동기가 학습자 만족 및 참여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미숙. 2021.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병철·한정란·김은영. 2016. “베이비부머 남성의 퇴직태도와 노후준비도가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71(4): 119-141.
- 오애숙. 2022. “신중년의 평생교육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무희. 2017. “중장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키백과. 2021. 5.21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https://pedia.org/wiki/>
- 유성경·박은선·김수정·조효진. 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 유수현. 외(2010). 『정신건강론』. 파주: 양서원.
- 유영란·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 유영주·김진모. 2014.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산업교육연구』 29: 1-27.
- 유혜엽·기영화. 2009.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HRD연구』 55-74.
- 유혜진. 2020. “은퇴자의 평생교육참여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숙. 2014.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라이프스타일 및 배우자관계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채. 2017. “40-50대 중등교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분석-중학생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옥한. “평생교육 20년 (1995~2014) 연구동향 분석”.
- 윤지은·전혜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소득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윤지현·김호연·김두영, 2016.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근영. 2020.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환. 2003.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도영·서혜영·이백철·정계현. 2016.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웃음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융합학회지』 7(4): 199-207.
- 이병석. 2020.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주. 2020. “퇴직 준비 역량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긍정 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김정희. 2016. “중년기 여성의 학습자 특성, 참여동기, 학습만족도 및 평생 교육 참여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학 연구』 22(3): 149-178.
- 이서정·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 887-905.
- 이석진. 2012.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 『한국평생교육학회』 18 (18): 65-85.
- 이석진. 2015. “성인 평생학습자의 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메타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165-193.
- 이선재. 2015.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와 삶의 질 간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주. 2020.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현. 2021. “한국 중장년층의 건강행태와 식생활 및 식품섭취에 따른 정신 건강 상태: 제5, 6,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16)”.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 2021. “한국 평생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생학습 사회 학술지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보고서.
- 이운해. 2018.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O2O 서비스 이용의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2020”. 414: 1-25.
-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034-062.
- 이정복. 2015. “노인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수·채현길. 2015.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 경영』 11: 181-202.
- 이지모. 2016. “중장년층 성인학습자의 성찰학습수준과 노후준비의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3. “한국 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 고찰: ‘Andragogy Today’와 ‘평생교육학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16(16): 185-209.
- 이창수·김현국·정연수. 2013.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비평가

- 향후 과제”. 『한국웰니스학회지』 8(4): 1-11.
- 이창익. 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주. 2021. 『세븐테크 p 304 (낮설지만 익숙한 클라우드 컴퓨팅)』.
- 이혜정·정유지·김희진·서희선·이홍수·심경원·이상화·조주연. 2002.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23(10): 1210-1218.
- 이혜자·성명옥·신윤아. 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 심리적복지감과 우울감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이희수. 2016. “평생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 대학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241-262.
- 임민주. 2015.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평생프로그램 운영방안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용숙. 2015. “노인의 평생학습참여동기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실. 2010. “생활체육 테니스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다현. 2018. “중년여성의 운동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자기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옥. 2007.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1): 1-36.
- 장영은. 2022. “중장년층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동·윤영란. 2015 『평생교육론』, 동문사.
- 장은주. 2017.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명수. 2013. “노인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교육 만족도 매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숙. 2016. “중년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동향 탐색-국내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순득. 2022.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동방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표. 2017. “성인발레 수업 참여가 신체 이미지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이소정·이윤경.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경. 2019. “중장년기 노화인지수준과 노화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령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은·이기홍. 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조사연구』 11(2): 45-69.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7(4): 829-845.
- 정은주. 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2020.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더불어 나이듦’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진·이희수. 2009. “대학원 여성의 학습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한국HRD연구』 4(3): 55-78.
- 정현아. 2020.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홍인. 2017. “중장년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발달과업 성취수준, 성공적노화 예측요인, 성공적 노화간의 구조적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광미. 2017. “성인여성 학습자가 지각한 평생교육 기관특성, 참여동기, 학습만족도 및 학습성과에 대한 구조관계 분석”. 중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금순. 2014.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참여동기 유형에 따른 학습동아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석주. 2000. “출근전 아침 운동이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희. 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우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 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 :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재일. 2003. “헬스클럽 회원의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민경. 2016. “중장년층 성인학습자의 성찰학습수준과 노후준비의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갑부. 1997. “성인교육에의 참여 및 비참여동기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3(2): 37-56.
- 차윤지. 2011.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차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만집. 2009. “스쿠버다이버들의 참여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장인협. 200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순주. 2017. “직장인 중년 여성학습자들의 평생교육 대학원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S대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 1986. “성인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1993. “한국사회교육의 과거·현재·미래 탐구”. 『한국교육개발원』 .
- 최운실. 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최은수. 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12(12): 167-183.
- 최은수. 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12(12): 167-183,
- 최은영·최혜경. 2015.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가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4): 23-57.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중윤. 1998.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근. 2021. “베이비붐 세대 산업체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퇴직 태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영·유혜정. 2020. “중장년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활동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2008. “한국 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최혜련. 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0. 『장래인구추계』. <http://kostat.go.kr/>
- 통계청.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
- 한국교육개발원 (2021). <http://lifelong.kedi.re.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1.
- 한상길. 2003. “성인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한상길·조윤진. 2013. “지자체 여성회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 요인 탐색”.
- 한상훈. 2007.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355-374.
- 한승진. 2005. “대학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정란. 201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설계 필요성과 방향”.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한준상. 2002. “중년기 이후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연구계획서 보고서. 1: 143-161.
- 허명숙 외 17. 『성인교육의 현재와 미래』 학지사.
- 허성호·정태연. 2012.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9(2): 133-158.
- 현영섭·신은경. 2011.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저해 요소와 학습저해 해소 방법에

- 대한 개념 연결망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6: 23-48.
- 홍금희. 2014. “중년기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요소 및 노후준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경. 2018. “경력단절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력설계의 매개효과”.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송정선. 2005.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23: 25-44.
- 홍유진. 2020. “평생교육 학습자의 특성이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 자기존중감, 학습몰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익제·이인정·최해경. 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최해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황소연. 2014. “홀로사는 노인의 독거생활에 대한 자발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승희. 2012.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윤주. 2015. “중년기 기혼여성 재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유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ltes, M. M. & Lang, F. R., Everyday function and successful aging: The impact of resource, *Psychology and Aging*. 12(3): 433-443.
- Baltes, P. B. and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4.
- Bandura, A.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ron, R.M. & Kenny, D.A.(1986). The moderator 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shier, 1971.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Houle's typology".- 148 - Adult Education. 21-2, 3-26.
- Boshier, R. 199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ternative form of the education participation scale: Adult Education Quarterly 41(3): 150-167.
- Bowling, A. 2008. Enhancing later life: how older people perceive active ageing?: Aging & Mental Health 12(3): 293-301.
- Browne, M. W., & Cudeck, R. 1979.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 162).
- Burgess, P. 1971. Reasons for adult participation in group educational activities: Adult Education Quarterly 22(1): 3-29.
- Carroll, H.A. 1969. Mental Hygeian, Eagle Wood Cliffs.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 Collings, P 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in a - 131 -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 127-155.
- Cosco, T. D., Prina, A. M., Perales, J., Stephan, B. C.,and Brayne, C. 20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373-381.
- Cox, H. G. & Hammonds, A 1988. Religiosity, ag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ligion and Aging. 5(1-2): 1-21.
- Crosnoe, R., & Elder J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

309-328.

- Deep, C. A., and Jeste, D. V., 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 6-20.
- Elizabeth, A. P., Lynda, A. A., Andrea, Z. L., Larson.,and Eric, B. L.2004. “Old adults’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211-216.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22(6): 23-742.
- Feldman, N. S., & Sweeney, S. W. 1989. Lifelong education for lifelong needs: *Adult Learning* 1(3): 14-17.
- Fisher, B. J.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 Flood, M. 2002. Successful aging: A concept analysis: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and Testing*, 6(2), 105-108.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 Freedman, 1976.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Saunders”. 343-362.
- Friedrich, D. D. *Successful Aging :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2.
- Gary, R. C. 2007.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 Glass, T. A. 2003. Assessing the success of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tional Medicine* 139(5): 382-383.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use, L. W., & Masesar, M. A.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 Aging in

- Long-Term Care: Perceptions of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Nursing* 20 (1999): 527-539.
- Hackey, C. H., & Sanders, G. S. 2003.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 Mckay Co. Caro et al. 1993.
- Hockey, R. 1979, Stress and the cognitive component of skilled performance, In V.Hamilton, D. A., Warburton(Ed.), *Human stress and cogni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John Wiley & Sons.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Madison: Wisconsin, WC: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apers on child psychology, education and related subject*: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CA: Cole Publishing Co.
- Knight, T., & Ricciardelli, L. A. Successful aging: Perception of adults aged between 70 and 101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003. 56.3: 223-245.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NJ: Cambridge Adult Education.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H. and Mckee, B.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f.
- McCarthy, V. L. 2009. *Exploring a new theory of successeful aging among low-income older adults in an independent and assisted living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 Morstein, B. R., & Smart, J. C. 1976 Factor analysis at large: A critical review of the motivational orientation literature: *Adult Education* 27(1): 83-98.
- Ross, B. H. 1987. This is like that: The use of earlier problems and the

- separation of similarity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3: 629-639.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yff, C. D.,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1989, 34-55.
- Sabates. R., & Hammond. C. 2008. *Th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on happiness and well-being*: London, UK: Centre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 Sadler W. 2000. *The third age*: Boston, MA: Da capo press. 김경숙 역. 2006. 서트레이지 마흔이후 30년. 서울: 사이.
- Schultz, R., & Heckhausen, T.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14
- Sheffield, S. B. 1985. The orientations of adult continuing learners: In D. Solomon (Ed.), *The continuing learner*. Chicago, IL: Center for the Study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
- Sobel, Michael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 - 312.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Wlodkowski, R. J. 2008.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bstract>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Aged

-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Mental Health -

Gi, Kyung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 M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aged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impact of mental heal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 survey was undertaken for a two-month period, from March 1 to April 30, 2022, to verify this study. The survey used a random sampling method by conducting a targeted survey of middle-aged adults learning or studying at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llected 360 copies. These copies were used to identify participation motivation, successful aging, and mental health level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PSS 25.0 program utilizing chi-square, t-test, and ANOVA.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the successful aging was verifi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proposed by Baron and Kenn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demonstrated using the Sobel tes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felong education is vital to help middle-aged learners successfully age. Second, the typ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 orientation, destination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were affect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Respondents preferred one-off, but the learner's motivation type does not belong to any one type of group but is inter-related with each group.

Third, it was confirmed that mental health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people. Regarding the effect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uccessful aging, mental health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orientation, a sub-factor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Furtherm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uccessful aging,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seems to affect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but destination orientation did no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lifelong education to prepare for the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aged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mental health.

Keywords: Middle-aged,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successful aging, mental health

(부록)

설 문 지

중장년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조사는 『중장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문항이라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연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3월 일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 상 미

석사과정 기 경 희

I. 다음은 귀하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이나 직장 이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얻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까지 배워온 학교교육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앞으로의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을 얻거나 창업을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무엇인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배움으로써 자녀 학습과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귀하의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삶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남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는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일이 잘못되는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슬프고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도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요즘 자주 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남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신이 맑아서 사리 분별에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7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교육, 취미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하는 활동은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간에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큰 실수를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	타인과 감정싸움이 있더라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타인에게 화가 났을 때, 잠시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일반 사항 조사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40세-45세 ② 46세-50세 ③ 51세-55세 ④ 56세-64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기 혼 ② 미 혼 ③ 사 별 ④ 기타()

5. 귀하의 건강상태는?

- ① 매우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이 좋지않다

6. 귀하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목적은?

- ① 직무역량 강화 ② 자기발전에 대한 만족감 ③ 건강을 위해서
④ 학력 보완을 위해서 ⑤ 취미 또는 여가생활

7. 귀하가 현재까지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간은?

-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3년미만 ③ 3년이상-5년미만 ④ 5년이상

8. 귀하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 ① 15회이상 ② 10회이상 ③ 5회이상 ④ 1회이상

9.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평생교육 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②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③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④ 직업훈련 및 연수형 평생교육기관 ⑤ 시민사회단체형 평생교육기관 ⑥ 기타

♣ 본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